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4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11. 25(금) 14:02~16:12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제3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집 공사로 인하여 9월 2일 전체회의 이후 대략 3개월 만에 다시 예술가의 집에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6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사무처장, 본부장, 상임감사님, 감사실장 그리고 안전과 관련한 담당부장 및 담당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로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님께서 함께 회의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지영 기획조정부 과장을 포함하여 사무처 직원 9명이 참관을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위원 12인 중에서 현재 11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방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회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에 문제가 있거나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회의를 세우고 회선을 점검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의결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것도 찬성과 반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서 의결에 혼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할 텐데요.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은 전체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회의자료 4쪽입니다.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는 말씀드렸던 대로 4쪽에 있습니다. 지난 342차 전체회의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 2건 모두 원안 의결되었고요. 343차는 서면으로 개최되었으며 1건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전차 회의결과를 보고 받으셨습니다. 전차 회의

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접수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안건은 의안번호 제979호 성회
통 관련 지원신청 부적격자 결정의 건입니다. 먼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하여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의결사항 보고를 시작하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주시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먼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여러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진행함에 동의하셨습니다.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므로 이후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개 전환)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의결사항은 모두 소화가 되었고 6개의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
3차 문학나눔 도서보급 신청도서 결정의 건,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하반기 공모 추진
현황, 2023년 해외레지던스 신규 파견사업 추진계획(안), 2022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
획 7차 변경(협의 변경) 추진, 제8차·제9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

보고 등 6개의 보고사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 보고사항인 2022년도 3차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 도서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있습니다. 일단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차장 : 예, 오늘 정대훈 부장이 심의로 참석이 어려워 대신 보고하게 된 문학지원부의 김무열 차장입니다. 문학지원부에서는 오늘 2가지 안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나눔 도서보급사업 3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 보고안건과 2020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공모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3차 도서선정 심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은 아시다시피 우수 문학도서를 선정하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까지 9월 15일까지 15일간 접수를 했는데요. 총 922종이 신청되었습니다. 심의위원은 총 7개 분야 43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하셨고요. 심의위원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분과별 지원심의 회의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총 15회를 실시했고요. 지원심의결과 총 142종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시가 33종, 소설 30종, 수필 31종, 아동청소년 46종, 평론·희곡 각각 1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출판사별로 보면 총 91개의 출판사가 선정되었고요. 지역출판사의 경우에는 총 9개에 10종의 도서가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표에 신청대비 선정률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신청대비 선정률이 16%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7.6%가량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2종 선정된 도서 중에 첫 발간 작가의 도서가 22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제척 및 회피 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의 선정내역과 심의총평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자료 10쪽부터 17쪽까지 심의결과 보고 내용과 별첨하여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린 심의선정내역과 별첨자료 39쪽부터 57쪽까지는 총평입니다. 분야가 많아서 심의총평도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항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이니만큼 지원 절차에 준하는 위원님들의 논의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전체적으로 균형이나 지역, 성비 등은 균형 있게 잘 되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소설 같은 경우 더 심화가 된 것 같은데요. 거의 메이저 출판사들이, 물론

작품성이 좋으니까 그렇게 심의결과가 나왔겠지만 심의과정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자칫 지방이나 영세한 소규모 출판사들과 대형 출판사들의 간격을 점점 넓혀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선정률이 작가들이 그런 몇 몇 대형 출판사에 집중되어 더욱 간격을 넓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완책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지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역이라든가 신규, 소규모 등 쿼터들을 권장 내지는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기하는 것보다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심의결과가 대형 출판사 중심이다, 지역 균형을 포함한 출판의 다양성 유지 차원의 집중과 관련하여 지원제도의 세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신규 등 다양성 차원의 역동적인 심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문학나눔도서보급사업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늘 나왔던 의견이었는데도 대안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차장 : 예, 이시백 위원님 말씀처럼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출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작가들의 경우에는 수도권 대형 출판사에 대한 선호가 강한 편은 사실이고요. 그래도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출판사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을 들으셨는데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공공지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고민되는 지점인 다양성과 수월성의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종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느냐 하면 대형 출판사나 우수 출판사에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내놓는 제안은 규제하고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형이나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을 배려하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형 출판사의 집중을 몇 종으로 제한하는 것 외에 제한폭을 넓히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일정 쿼터를 보장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정정숙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이시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마련하겠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방안을, 예를 들면 다음 전체회의에서 제시해 주신다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정정숙 위원님의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번 논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발언을 독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공공기관으로서 지원은 잘 나가고 뛰어난 작품을 지원 하는 수월성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 지원이 절실한 미취약한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출판사들은 상업적으로도 저희의 지원이 절실하게..... 물론 그쪽에서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러나 지역에서 몇 종의 책을 출간하지 못하는 소규모 출판사들은 이 공공지원이 큰 힘이 되고 없다면 존립을 하기가 어려운 출판사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된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간격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를 인지하시고 공감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이시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문체부와 해당 부서와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우수 문학도서는 사실 향후 관점에서 시작해서 꽤 많은 도서에 대해서 하다가 너무 메이저 출판사에 지원되는 게 많아서 그동안은 1개 출판사에 연간 몇 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시백 위원님께서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출판사 쪽으로는 별도로 인문, 사회, 과학 도서 말고도 출판사 쪽으로 지원은 문체부 예산을 통해서 하고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트랙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예술위원회에서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출판계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해안을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원 총평을 보면 소설1, 2, 3분과와 수필까지 모두 수월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워낙 수월성을 중심으로 결과를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지원이 과연 어디를 적정하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위치를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반복된 것인데요. 오늘 간략하게 사무처장직무대행의 답변이나 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내는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회 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부서 차원의 대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논의가 필요하면 추가논의를 할 텐데요. 상임감사님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남요원 감사 : 우리 이시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적인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 문학나눔 우수 도서 선정사업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취지의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출판 문학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출판인들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동시에 새롭게 작가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동시에 조성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그렇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기재부나 문체부에 저도 문학지원부장님과 고민해서 제안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궁

극적으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제 요지는 대형 출판사의 집중을 제한하는 마이너스를 개선하자는 방안이 아니라 소규모 출판사를 배려하는 플러스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요원 감사 : 그러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방금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덧붙이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체부와 협의를 하실 때 지금 문학나눔 우수 도서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방금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다양성 그러니까 문학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출판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작가들에 대한 창작환경의 조성문제 등을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설계된 부분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쿼터나 방향을 좀 논의해 주시는 게 한 가지고요. 동시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상 예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만 충분히 확보된다면 이것을 별도의 트랙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이 2가지를 다 문체부와 협의하셔서 협의한 내용을..... 예를 들어 결론이 나든 결론이 안 나든 문체부가 제시한 부분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대형 출판사 중심의 결과를 넘어서는 소규모, 신규 이른바 다양성 차원의 왕성한 출판문화를 이끌기 위한 지원 적격성의 문제를 현재 있는 제도 내에서의 고민과 제도를 더 확장하여 내는 대안까지 포함하여 12월 위원회에 담당 부서의 제안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접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므로 도서보급사업 3차 심의 선정 결과의 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은 2022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공모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 차장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차장 : 예,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공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사업은 미발표 작품에 대해서 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온라인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총 832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하반기에 100명을 선정할 예정이고 심의는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정 결과는 위원회 의결 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담당 부서의 보고를 받으셨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심의계획과 관련된 내용이기에는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의결에 준하는 정도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해서요. 제가 알고 있고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창작기금 사업과 예를 들어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창작기금과 유사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지원액이 우리의 지원액보다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정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서 여쭙보는 건데요. 그것과 우리의 창작기금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예컨대 예북에도 신청하고 우리 쪽에도 신청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그런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를 담당자께 여쭙습니다.

김무열 문학지원부차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작기금이 혹시 발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1,000만 원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정숙 위원 : 아니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작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성격은 예북이니까 복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 문학을 하는 예술인들이 양쪽에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중복성이라는 성격은 없는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박종관 위원장 :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기금과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의 차이를 질의하신 겁니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같은 경우에는 발간이나 발표를 전제로 한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이고,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준비금을 받으신 분께서 그 이후에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신청하실 수는 있는데 각각의 지원신청서에 작성하는 내용 등은 다릅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물론 문학을 포함하고 있지만 창작준비금은 전 장르를 포함하고 있고 액수 역시 차이가 있고요. 저희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은 문학 창작을 발표하는 발표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밖에 의견이 있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이것도 역시 논의를 종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접수해 주시면 원안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접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네,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가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국제교류사업 쪽의 보고로 이어가면서 나머지 보고사항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인 2023년도 해외레지던스 신규 파견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2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부 사업 중에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창작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통해서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정형 레지던스는 말 그대로 예술위원회와 해당 레지던스 간 협약을 맺고 예술가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시공모 때 함께 의결되어서 오늘은 지정형 레지던스 2개처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에 지정형 레지던스 사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가 올해는 60% 이상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은 아르코가 가진 국제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신규 거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개 신규 레지던스도 이런 방향성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 나폴리 동양학 대학입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서 국제사업에서 신청 수요와 지원이 가장 적은 장르입니다. 그래서 레지던스도 실제로 집필 공간을 제공하는 창작레지던스가 굉장히 한정적이라 위원회에서는 해외 한국학대학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문학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문화원, 영사관, 번역원 등을 통해서 소개받은 나폴리 동양학 대학과 저희가 2018년부터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작가 파견이 중단되었던 베니스 카포스카리대학 등 2개를 두고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거점의 담당 교수도 모두 만나 보였고요. 그 결과 나폴리 동양학 대학을 신규 운영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 제공과 파견 작가님을 케어할 수 있는 교수진이나 코디네이터 조건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리 동양학 대학은 한국학 전공 신입생이 250명 규모로 큰 편이고요. 지금 K-pop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뛰고 있기도 해서 한국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담당해 주실 안드레아 교수님의 경우에는 한국 문학 분야의 키맨으로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공식 번역가이기도 하고 황석영, 김영하 작가님 등 한국 문학 작가님들의 작품을 다수 번역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당 거점에서는 작품 구성부터 집필활동 그리고 전공자 대상의 강연과 현지 문학 행사 참석 등이 주요 활동이고요. 저희는 항공, 숙박, 교통비, 번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파견 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이고 저희 시스템에서 접수 받은 현지에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 레지던스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위원회에서 예술·기술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20년과 2021년에 한·싱가포르 공동기금 사업의 주제가 아트앤테크로 진행되면서 국제사업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

습니다. 작년부터 아트앤테크 페스티벌 중에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아스 일렉트로니카 측과 협력에 대해서 장기적인 논의를 해 왔고 올해 저희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해서 총 디렉터와 협의하고 전문가분들께도 의견을 구해서 사업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개인의 역량 강화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목표가 있지만 아직 '아스'라는 플랫폼 자체에 한국작가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큐레이터를 파견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작가와 작품이 소개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현지 페스티벌 기획에 적합한 사람이 선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접수는 저희가 받되 심사는 아스 측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발된 큐레이터는 2023년 아스 페스티벌 전시기획팀에 소속되어 리서치와 전시기획 등을 수행하게 되고요. 우선 4월에 린체에 가서 프리라는 전세계 오픈콜 공모심의를 참석해서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전반적인 페스티벌 주제를 익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본 프로그램은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실제 프로그램 기획에 투입되게 됩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비와 항공비, 활동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세부 예산은 조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 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각 협력기관과 공고문을 최종 검토를 마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내년도 해외레지던스 신규 파견사업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나폴리 동양대학교에 파견을 보내는 내용과 아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에 큐레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논의와 의견을 내어주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백 위원 : 문학 예술가 파견지원 사업 중에서 수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몽골레지던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원이 되었습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몽골기관 교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까지는 몽골기관 교류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시백 위원 : 논의 중이십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아직은 긍정적으로 서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이 중단될 때 그 요인을 우리가 분석하고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당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몽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시백 위원 : 아니요. 몽골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지던스를 파견할 때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레지던스 별로 굉장히 상이한데요.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쪽에 프로그램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번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어레인지 해 주시고 파견되는 작가가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게 코디네이터를 지원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몽골을 언급한 이유는 문학 쪽의 예술가 파견이 다소 유럽 중심으로 너무 편중된 감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쪽에 취약한 교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이 현장에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제 3세계 문학과 교류도 힘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말씀하신 대로 유럽 중심의 거점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도 그렇고 권역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백 위원 :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립니다. 남북교류도 해외레지던스 사업 속에 포함이 됩니까?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관련 레지던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국예술 국제교류지원 프로젝트로는 가능하나 레지던스 사업을 신청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남북교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활로를 틀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예술위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지던스와 관련해서는 기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원생 수준에서는 4개월 아니면 6개월, 9개월, 1년까지도 있는데요. 우리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은 너무 긴 것이지만 지금 3개월, 4개월이라서 이 기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담당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개월, 4개월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나가시는 분들은 최소 6개월 정도는 드려야.....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왜 3개월, 4개월로 제한하는지에 대해서 예산상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레지던시도 모두 3개월, 4개월이었는데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일단 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시각예술 분야의 라익스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작가를 파견하는 사업인데 2년을 파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일정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저희가 협의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3개월을 통으로 해외에서 체류하실 수 있는 작가님들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를 소화하기로 어렵지

않을까? 신청이 적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와 기획자를 파견하는 사업도 기간을 정하는 게 상황이 다르다고 느꼈는데요. 기획자들은 긴 일정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시각 분야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거나 장기체류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르나 협력기관의 역할별로 약간 상이한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덧붙이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박경주 위원 : 저는 오스트리아 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의견인데요. 이게 시범사업이면 올해 해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일단 평가를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중간 과정에서 알았으면 의견을 드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일단 분야를 시각예술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술·예술 융복합사업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연이어서 사업계획안을 갖고 얘기할 때도 작품이 만들어지지만 그게 갈 곳이 많지 않아서 작가들에게는 후속으로 재공연을 한다거나 재전시를 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중요하게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제가 기획을 하는데 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시범사업을 저희 아르코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 아르코미술관에서 계속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했고 연계시켜서 시범사업을 저희 사업에서 나온 작품 중에서 우수작품을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그쪽에 소개하는 식의 사업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페스티벌은 시각예술보다는 기술 융복합과 퍼포밍까지 다 들어가 있는 중요한 페스티벌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술·기술 융복합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들에게는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안에서도 예산의 크기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제대로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이라서요. 저는 그게 만들어지고 발표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적인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자면 이 부분의 분야를 시각예술로 하지 말고 그냥 기술융복합 및.....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에 가능한 기획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차로 저희 아르코미술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큐레이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현지에서 심의하는 거라면..... 기획안을 그쪽에 보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신의 경력만 보내는 것인지가 궁금했어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기획 같은 경우에는 프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와 저희 지원신청서에 준하는 활동목표 등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회선이 죽었는데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안 들렸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전체적인 주제 자체가 ‘프리’라는 심사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기획을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나 그간의 경력이나 지원신청서에 준하는 활동목표 정도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래서 주신 기획서를 읽어보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외부기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팀에 누군가를 파견하는 건가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전시기획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논의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 교류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몽골예술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교류가 내년에 다시 재개된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아 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왜 확장하지 못하느냐의 배경은 제가 좀 설명하면,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과 같은 좋은 아시아교류 사업들이 있었으나 예술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지금은 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사업이 옮겨가 있는 형편이라서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한 사이 조금 부족한 듯 보이는, 그러나 다른 기관까지 포함한다면 충분히 담보되고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이 중요성과 관련해서 적정성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박경주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분야 즉 시각예술이 적정한지의 문제와 지원서류 문제 그리고 연속성 마련 등 다소 총체적이거든요. 따라서 사안의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제가 정리하지 못한 것은 기간이 3개월, 4개월이 적정한가의 문제로 부장의 답변은 협력 기관별 차이와 프로그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박경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답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시백 위원님과 정정숙 위원님 답변이 되었죠?

정정숙 위원 : 예, 저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를 시각예술에서 융복합 문제로 확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박경주 위원님의 요청사항인가요?

박경주 위원 : 일단 그런 요청이기는 한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쪽 홈페이지의 전체 프로그램과 저희가 계획을 짰던 것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업의 목적이 한국의 기술융복합 관련된 예술을 그쪽에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기획했다고 했는데요. 당장 저희가 파견하는 큐레이터는 가서 뭐를 배우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매칭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이 예술·기술융복합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 접수된 분야를 보면 시각예술, 다원예술 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뽑히는데요. 그 많은 예산이 매년 쓰이고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기술융복합 연구에서도 방향성으로 제시되었던 게 축제와의 연계 그리고 해외 거점과의 연결하는 사업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준비해서 그

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예술·기술융복합 사업에서 나온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면 저희 창작지원사업과 같이 연계되면서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정리하는 도중에 의견이 끊겼는데요.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페스티벌의 분야를 시각예술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융복합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현재의 제도 속에서 연속성 문제를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설계할 수가 없느냐는 2가지 문제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요약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박경주 위원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요약하자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획했던 원래 의도와 결론적으로 사업안이 나온 게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많은 배경을 놓고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회의가 해야 할 목적인데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모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회 전체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회의자료 25쪽을 보시면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신청 자격 2번의 동그라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 줄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해 하셨던 “어떻게 뽑느냐?” 1차와 2차로 해서 뽑는다는 답변은 아까 된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한 연속적 부분은 시범적으로 하는 만큼 해보고 판단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 워낙 중요한 페스티벌이라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래서 시각예술 분야의 큐레이터에서 이것으로 하면서 밑에 ‘예술과 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있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레지던스라 개인이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가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을 조금 논의해서 예를 들면 시각예술 분야 혹은 융복합 분야 혹은 다원 분야로 좁힙니다만 예술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문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담당부장의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부장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사업의 취지는 아까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차적인 취지였고 시각예술 기획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취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과 같은 설계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측면이 있지만 취

지에 대해서는 협소하게 이해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부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추가의견을 드릴게요. 지원 취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디에 시각기획자 큐레이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국내 및 아시아권 미디어아트, 예술과 기술 분야 작가 및 작품을 현지 페스티벌에 소개하는 교두보 역할 수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여기의 사업 소개 및 지원 취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사업안이 나온 게 매칭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의 추가의견과 정정숙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부장이 정리해 주세요.

박경주 위원 : 예, 저는 지원 취지를 보고 말씀드린 거고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관 위원장 : 네, 그러니까 담당부장의 정리를 듣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24쪽을 봤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레지던시가 있어서 오픈콜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요. 기관 간의 협력으로 한국 큐레이터를 위한 룸을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스티벌 전시를 함께 기획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르스 측과 처음 컨택을 하면서 아르코 미술관이나 미래사업부 모두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나온 안이 바로 큐레이터 파견사업이었고요. 페스티벌 측이 아니라 퓨처랩이라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의 한 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관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과 기술 지원사업에서 나온 결과물들 그러니까 작품이 소개될 수 있는, 예술가가 소개될 수 있는 후속 지원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과는 약간 상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받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박경주 위원 : 답변은 잘 받았고요. 미술관과 같이 의논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은 중간이라도 보고받아서 어떻게 진행되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받은 지 며칠 안 되었고 살펴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을 취소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위원회 안에 있는 지원사업과 예술위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고 순환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르코미술관에서도 예술과 기술 융복합 관련해서도 페스티벌을 하고 있고 계속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저희 예술·기술 융복합 창작지원사업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 우수작품을 가지고 기획이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지원신청 자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고 있는 창작지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작품들이 제공연되거나 재전시 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아까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검토한 것은 ‘시각예술 분야 큐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단순히 “예술기술 관련 전시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경험이 있는 자”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고 이것은 다른 용어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예술 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라고 아예 타이틀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원재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르코 해외레지던스 사업이 왜 이렇게 쓰이는지는 알지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르코의 국제교류와 레지던스의 지원은 좀 다른 것이죠. 너무 과하게 레지던스 지원에 기대를 하니깐 이런 오해나 불필요한 논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이나 퓨처랩의 시스템을 좀 아시면, 여기는 역할이 너무 과해요. 이분이 가서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기에 가서 인터뷰도 해 보고 협업도 해봤지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레지던스를 보내고 지원한다는 정도로 끊고요. 지속적인 아르코의 레지던스 네트워크 교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르코 자체에서 저희가 기획할 때 국제교류나 협력사업은 별도의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아르코가 보냈던 레지던스에 많이 가봤는데요. 너무 과대 해석을 하지는 말자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뽑을 때도 너무 우리 예술위에 베풀 수 있는 레지던스가 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류가 잘 될 수 있게. 그 대신에 그 레지던스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우리 기관 쪽 교류와 연결될 것이고 기관교류 정책이나 이 사업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현실적으로 진행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논의내용을 정리하면 분야에서 시각예술과 융복합으로 확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도 있고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연속성과 관련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추가 제도를 통해서 레지던스 사업들이 조금 더 확장된 의미를 갖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죠. 지금 당장 대안을 낼 수 있는 내용이면 저희가 계속 논의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사업안에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 대안을 즉시 낼 수 없는 거라면 다른 대안을 내야 하거든요. 할 수 없다거나 혹은 노력해 보겠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요. 위원회라는 게 결국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획 내용을 제대로 더 의미 있게 살리기 위해서 제도 내용을 현장의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무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정형 레지던스 같은 경우에는 예술가

들의 설문조사를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기관에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내년 레지던스 사업을 설계해 나가려고 하고 아까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적인 평가나 정책적인 평가를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올해 국제교류부에 와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고요. 어떤 평가체계를 가지고 가는 부분 그리고 다녀오셨던 예술가들이나 해당 기관의 네트워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아까 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자격 조건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시 경험이 있는 큐레이터라고 해석을..... 지금 25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경주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체적으로 사무처에서 기획할 때 의도 자체가 시범사업이라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처음 할 때 그쪽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쪽으로 제한을 한 것은 그런 것인데요.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예, 일단 지원신청자격에 “시각예술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큐레이터”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취지에서 세 번째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교두보적 역할 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취지가, 사실 레지던시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되게 무겁게 느껴지니까 세 번째 부분은 약간 완화시켜서 문장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신청자격은 “시각예술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큐레이터”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술과 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저희가 보는 회의자료는 그대로 공고문이지 않습니까? 이 공고문을 제대로 다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공고문을 손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회 중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아까 말씀드렸던 25쪽의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1번의 사업 소개 및 지원 취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참여하면 시각예술 기획자로서의”에서 ‘시각예술’을 빼고 “페스티벌에 참여하며 기획자로서의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하고요. 세 번째 동그라미의 “국내 및 아시아권 미디어아트.....” 이 부분 자체는 드러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의 지원신청자격에서는 현재 “시각예술”로 되어 있는데 “시각·기술과융합 예술분야 큐레이터”라고 하고요. 그 바로 밑에 ※표시는 “예술과 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있는 자”에서 ‘있는’을 빼고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박경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리고 제가 그동안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서 요약하지 못했던 것이 기간이 길다고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도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소요 예산의 차이가 좀 커 보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자료를 수정해서 드리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도 비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 레지던시 중에 가장 프로그램비가 비싼 곳이 라익스아카데미라는 곳인데요. 1년에 2만 2,000 유로 정도고 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라익스 같은 경우에는 기간대비 비용이 굉장히 커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지정된 레지던시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협력사업으로서 한국 큐레이터를 위한 새로운 룬을 만들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스타트해 보고자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활동 기회를 사전에 확보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태림 위원 : 아까 자구 수정을 하면서 지원신청자격에 “시각예술분야 큐레이터, 예술과 기술 관련 큐레이터”라고 병기를 하는 것이죠?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국제교류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시각예술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분야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라고 바꿨고요. 밑에 “예술과 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있는 자”는 “전시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나영 국제교류부장 : 풍부한 자를 바꾸지 않은 이유는 풍부한이라는 부분에 어떤 기준을 두기가 애매해서 그냥 있는 정도로 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러봅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금 “시각예술분야 및 예술·기술 융복합 분야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조건에 “예술과기술 관련 전시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앞에 “시각예술분야 및”이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예술과기술 융복합 분야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라고만 가도 되고요. 앞에 시각예술분야가 있으면 이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용어가 중첩되는 문제가 있죠.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경주 위원 : 의견을 드리면 홍태림 위원님 의견에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시각예술분야를 빼는 게 괜찮은지는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태림 위원 : 기획자, 큐레이터라고 했을 때 암묵적으로 시각예술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어두는 느낌도 있지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 같지는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각예술분야를 의미 중첩 때문에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놓을 것인지는 실무에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고 모든 논의를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접수 전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해외 레지던스 신규 파견사업 추진계획(안)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2022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협의변경) 추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지금 기재부와 협의변경하는 건이 있어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협의 완료 후 위원님들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쯤 기재부와 협의를 요청했는데 예산 국회가 다 끝나고 추후 협의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2가지 사유인데요. 하나는 토지매각대 수입 과목을 신설하는 건과 조건부 기부금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증액시키는 부분입니다. 아래 변경 사유를 보시면 예술위원회가 소유하고 있는 뉴서울컨트리클럽의 토지 중에 광주시에서 송·배수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부 수용이 된 토지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보상이 이뤄져서 7억 5,000만 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수입에 잡아야 합니다. 수입 과목에 토지매각대라는 과목이 정확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입과목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기부금 사업이 수입과 지출계획 증액인데 일상 회복이 되면서 조건부기부금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에 잡혀 있는 기타 보전금 예산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측했을 때 10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한데요. 다른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 과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기재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

가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매각대 7억 5,000만 원을 신설하고 조건부기부금 10억 원은 수입과 지출에 다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께 서면의결이나 예정하고 있는 성과공유워크숍 이후 위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것인데요. 그것 때문에 기금 변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을 토대로 의결해야 비로소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바뀌는 것인데요. 우리 위원회가 소유한 골프장의 일부 토지를 광주시가 송·배수시설 확충 사업을 하면서 일부 토지 점유한 부분을 현금으로 보상한다고 하여 수입을 잡는 문제와 보고 내용대로 코로나 이후 조건부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수요예산을 추가로 잡는 문제와 관련하여 급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실 의견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 접수하는 절차로 진행할까 합니다.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접수토록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문예진흥기금 7차 변경(협의변경) 추진과 관련한 내용은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8차·제9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인데요. 이 결과보고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해 주시고요.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정정숙 소위원장님이 보충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8차와 제9차 블랙리스트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인데요. 8차는 지난 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두로 대략 말씀을 드려서 9차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8차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8차와 9차를 통해서 크게 얘기했던 2가지는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포럼 추진문제와 블랙리스트 기간 동안 심사에 참여했던 외부 심사위원에 대한 조치 문제였습니다. 8차 회의에서는 사회적 기억 포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최종 확정안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스페이스엠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대 사회적 기억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억 포럼을 주최합니다. 문체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기관 누리집에 올라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올라가 있고 유관 기관 쪽이나 관련된 공공기관 쪽에도 해당 행사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위원장님과 사무처장직무대행도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위원님들도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사회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해주실 예정이고요. 발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시는 한상희 교수님께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토론자는 5인 정도가 나오실 예정인데요. 김민설 가톨릭대 공연예술문학과 교수님, 나만하 시각예술가, 박현선 문화/과학 공동편집인, 유연하 시인, 이한복 작가 등 5인이 나올 예정이고요. 토론이 끝난 이후 플로워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37페이지의 9차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9차 회의 때는 주로 심의위원 풀 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많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제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찬성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을 당시에 참여했던 심의위원들도 일정 정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취지로 접근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입장이고 그것이 심의 활동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떠한 의견입니다. 다만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책임지는 것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진행하다보면 개별적으로 소명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명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39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심사위원들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분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 외에 예술위 전임 위원들에게도 공동책임을 지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대입장의 주요 내용은, 일단 심사위원들을 모신 섭외 주체는 예술위고 어쨌든 심의과정의 운영주체도 예술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심사위원이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 심사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심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회 이상 그리고 어떤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더라도 명확성 부분이나 자의성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 그리고 약 7년의 기간이 진행되었는데 이런 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차 회의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누는 시간이었고요. 10차 블랙소위원회가 12월 14일에 예정인데요. 이때는 저희가 사무처 내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가능하면 수렴하고요. 저희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사무처에서는 조강주 과장 그리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도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말씀을 충분히 나눴고 12월 14일에 모임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저희가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하던 차에 직원들을 대표하시는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눌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소위원장님께서서는 추가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정숙 위원 : 추가의견은 없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노조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경청하고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혹시 노조에서 추가 발언이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이미 이전에 정책혁신부로부터 회의 참석을 위한 대략의 경과 자료를 공유받아서 집행부의 입장을 금번 회의 때 말씀드리려고 정회 상태에서 발언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보고안건에 “노동조합이 참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긴 대화 내용을 다음 차수에 보고안건으로 남기는 정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니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8차·제9차 블랙리스트 방지와 회복을 위한 소위원회 결과보고는 일괄해서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보고사항을 모두 접수하였고 특히 오늘 해외레지던스 신규 파견사업 2023년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하면서 일부 수정을 하였다는 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접수하기 전에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직무대행 : 예, 보고안건 중에서 두 번째로 다루었던 2022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발표지원) 하반기 공모 추진현황을 접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오늘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바로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접수해 주셨기 때문에 12월 첫째나 두 번째 주에 저희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서면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 역시 성안이 되면 서면보고 이후 서면의결을 통해서 변경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6개의 보고사항을 일괄하여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의결과 보고사항을 모두 접수하였고요. 12월 위원회와 관련하여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담회는 저희 워크숍으로 대체하고 12월 위원회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유독 12월 한파가 거셀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주 더디게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만 겨울이 문밖에 바로 와 있는 것 같은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코로나 7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임, 여러 가지 회의, 여러 가지 대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바쁜 12월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에 특

별히 유의하시고요. 위원회가 이달 30일에도 사회적 기억 사업으로 혹은 다음 달 15일과 16일에도 성과공유 워크숍, 정기간담회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술나무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후원의 밤 행사 등을 포함하여 자주 뵙게 되는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기원과 함께 바쁜 일정에 우리 위원회로서 꼭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감당하자는 말씀을 제안으로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허락을 받아 11월 정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할까 합니다. 제3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종료)

